**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4)**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주님의기도의 네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에 관한 여러 복잡한 이슈들을 여기서 다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부족하나마, 이 주님의기도에 담긴 의미와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과 달리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간구를 죄 용서의 실천과 결부시켜 놓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란, 어떤 선한 기준이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위반행위나 불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소극적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 혹은 실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범한 잘못 때문에 마음에 상처와 울분을 가져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요? 그때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끊임없이 속에서 솟구칠 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복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울 것입니다. 이 경우,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용서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우린 그저 용서를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의식적으로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를 험담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잠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복하려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앙금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내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솟구쳐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용서를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용서이고, 이 정도만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마 괜찮은 축에 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 노력하여라! 다만 얼마간이어도 좋다.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마음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찬 사람의 귀에 이 말씀이 잘 들어올 리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제 처지가 얼마나 억울한 지 아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냐구요?” 이렇게 잠시 흥분하여 소리칠 수는 있지만, 곧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부당한 고난에 대해 예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보다 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일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3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 그 어둠과 함께 정적이 왔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당하는 영혼의 고뇌를 어느 눈도 보지 못하고 어느 입술도 말할 수 없었다.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죄가 모두 그에게 지워졌다. 그는 자원하여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삼은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다. 그리하여 영혼이 비참하게 버림을 당한 가운데 그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부과한 죄와 그로 인해 그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내게 베풀어주신 용서의 은혜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백 데나리온은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육십만분의 일의 가치입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이 내게 진 빚이 내가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해 이처럼 턱없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나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체험한 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내가 때때로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일부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놀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그에게 범한 죄로 인해 소리없이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생긴 상처가 또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 비슷한 상황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개입으로 피 흘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그를 무시하는 나발에게 다윗은 분노와 살의를 느끼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를 노력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쩌면 하루 단위의 노력이 유익할 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생각될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에게 분노를 쏟는 것을 참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용서를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0-2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인내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단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습자책, 즉 학생이 쓰기를 배울 때 선생님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 내어 쓰는 완전한 글씨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가나다를 배우려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범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려 노력할 때 용서의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끝까지 추상적인 교리로만 남을 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나도 이렇게 타인을 죄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려 노력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러운 것인지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분명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짓는 죄까지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죄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그대로 두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 노력하면서, 또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주님께 내 발을 내어드리는 일과 같습니다. 때로 발조차도 씻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를 계속 체험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도 내게 빚진 자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사역을 위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죄사함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3:9). 용서를 노력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기도를 삶이 결부된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하고, 이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이지만 내게 잘못한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저희에겐 어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늘 돌아보며 내 이웃에게 너그럽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 노력하며,**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용서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